

“광주 군공항 이전 시·도·정치권 나서라”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속도 못내고 지자체 갈등만 키워
광주·전남·이전 예비후보 지자체 참여 합의기구 만들어야

광주시·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됐지만,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광주·전남 지자체 간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와 정부가 주도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 지자체 등이 참여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이를 협의·조정하는 합의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광주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

고, 전남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경우 역대 최고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는 군공항 이전 업무협의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을 비롯한 전남지역과 서울 등지를 86차례 방문했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국장과 과장, 실무진 등이 팀을 꾸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내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 사례 등을 수집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움직임이 전남도민으로부터 반감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주체인 국방부(정부)가 뒷집을 진 채 수수방관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급한 광주시가 직접 나서게 되면서 전남도와 해당 지역민들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국가사업이 아닌 광주시의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발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전남도청에서 국방부, 광주시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의 반대가 워낙 커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지역민들은 예정 부지로 거론 인근에 축사가 많은데 소음피해 보상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축사단지 이주 장소가 부족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인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성

하는 분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광주시는 구체적으로 이전 지역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단지 ▲공공의료 확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아열대 작물 위주) ▲주민참여형 온실 ▲청년 보금자리 사업 ▲가족분노 처리시설 ▲6차 산업을 접목한 이전 주변 지역 마을 활성화 사업 등이다.

광주시와 면담한 전문가는 “농어촌지역은 10~20년 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질 수 있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필요하다”면서 “군공항 이전 개발이익에 따른 지역분배를 확대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대 관건은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구 줄고 자영업자 늘어 폐업률 전국 1위 ‘불명예’

● 광주 경제 빨간불 ●

〈중〉 힘겨운 자영업자
상가 임차료 천정부지
금남로·충장로 상가
6곳 중 1곳 꼴 ‘빈 점포’
지자체·정부 지원대책 절실

광주가 8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제 지표가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개인 자영업자 폐업률은 12.2%로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 2011년부터 8년 연속 자영업자 폐업률 1위라는 오명을 남겨왔다.

4일 오후 찾은 동구 충장로 1가 입구부터 충장로우체국 앞까지 80m 거리에 ‘임대’ 딱지가 붙은 점포는 10개가 넘었다. 이들 빈 점포는 2000년대 10~20대 패션을 책임졌던 ‘남인천하’와 74년 전통 중화음식점 ‘왕자관’, 화장품 로드숍, 휴대폰 대리점, 패밀리 레스토랑, 생활용품점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성업했다. 하지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5년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금남로·충장로 3층 이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7%로, 지난 2분기보다 1.5%포인트 올랐다. 6개 점포 가운데 1곳 꼴로 ‘빈 점포’라는 것이다. 신흥 상권으로 꼽히는 상무지구 공실률도 0.5%포인트 오른 19%를 기록했다.

동구 불로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63)씨는 “30년 동안 음식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힘든 때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10년 전에는 하루 매출이 120만원을 찍을 때도 있었다”며 “지금은 올라

인 구매 영향으로 주위 옷가게 상권이 몰락하면서 덩달아 손님이 뜰 끊겨 하루 10만원 벌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동구 중앙로 160번길 이른바 ‘콜박스 사거리’로 불리는 변화가에서 과일음료를 파는 청년상인 B(30)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8평(26㎡)짜리 건물 임차료 300만원, 전기요금·수도요금 50만원 등을 합하면 한 달 지출은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올해 초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지 않고 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18~22일 광주 지역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9개 업종 소상공인 1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채광 경기 지수’는 77.9로 최근 3년간 ‘경기 채광 기상도’에서 ‘맑음’(90~110)을 기록한 달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손중호 광주시상인연합회장은 “지역 27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사정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강화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내수 판매가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힘든 해를 보내고 있다”며 “광주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늘고 있어 당분간 자영업자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는 올해 광주·순천·목포에 신설된 재기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 대통령·아베 11분 단독회담...“실질 관계진전 희망”

아세안+3 정상회의서 만나
대화 통한 해결 원칙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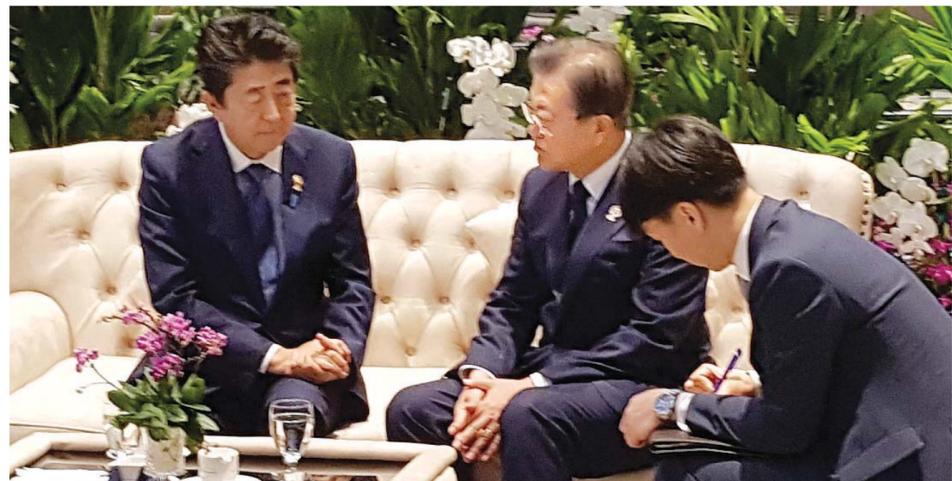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회담을 가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회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관련기사 3면〉
회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청와대는 사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의 전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 간 만남이 오랜만에 이뤄졌기에 대화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가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록 약식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을 치닫는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 대변인은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이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목숨 걸고 폐지 줍는 노인들 ▶6면
굿모닝 예향 - 진화하는 팬덤 ▶18·19면
“올지마, SON” 에버턴의 위로 ▶20면



“떨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대한민국
두, 미래로!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
-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